

2022년 1월호

Vol. 322

홍미진진 공주

올해도 꼭꼭만 걸어요
그래



신년사

존경하는 11만 공주시민 여러분!
공주시의회 의장 이종운입니다.

새로운 도약을 위한 2022년 임인년(壬寅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먼저 지난 한 해 동안 공주시의회에 보내주신 아낌없는 성원과 따뜻한 격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임인년 새해에도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기쁨과 행복이 늘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공주시의회에서는 지난 한 해 동안 임시회와 정례회 등의 회기를 통하여, 행정사무감사와 각종 조례의 제·개정, 시정 질의 그리고 예산안에 대한 세밀한 심사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면서 시정의 개선점을 과감하게 지적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공주시 발전을 위해 열심히 달려 왔습니다.

올해는 지방자치가 부활된 지 31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 지원 전문 인력 제도가 도입되는 등 지방의회의 권한이 크게 확대돼 그만큼 더욱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의정활동에 매진해 나가야 하는 때입니다.

이제 보다 전문성 있는 의정활동 구현과 주민의 실질적인 정책 참여 기회가 확대돼 지역주민의 권익 신장은 물론 민주주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하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공주시의회는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시민의 권익과 복리 증진을 위해 더 성숙된 모습으로 정성을 다하면서 ‘활짝 열린 의회, 살기 좋은 공주’를 이룩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가겠습니다. 그리고 집행기관에 대한 건전한 견제는 물론 협력과 지원을 통해 시민의 화합과 공주시의 발전을 이끄는 중심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임인년(壬寅年) 새해에는 지역경제가 더욱 활발해지고 시민여러분들의 꿈이 실현되는 희망과 기쁨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2년 새해아침
공주시의회의장 드림





공주시의회 누리집

공주시의회 의정 활동 소식

공주시의회, '대마도 점유에 관한 역사적 고찰' 주제로 의정토론회 개최

일본 독도 망언 등 역사 왜곡에 대한 대응과 영토에 대한 인식의 지평 넓히고자 마련

공주시의회(의장 이종운)는 11월 16일 시의회 특별위원회의실에서 '대마도 점유에 관한 역사적 고찰'을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일본의 '독도 망언' 등 끊이지 않는 역사 왜곡에 대한 대응과 시민의 영토에 대한 인식의 폭과 지평을 넓히기 위해 마련했다.

이종운 의장이 좌장을 맡고, 고주환 공주시마을공동체네트워크 이사장이 '대마도는 우리 땅, 역사적 사실과 대책'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했다. 토론자로는 전병철 우금티 기념사업회 이사, 이규철 성신여자대학교 사학과 교수가 참여했다.

발제자인 고주환 이사장은 역사적 사실과 다양한 사료·문헌·지도 등을 근거로 대마도 영유권을 주장했으며, 토론자인 전병철 이사는 일본의 대마도 실효 지배와 광복 이후 체결된 국제조약의

규정 내용상 한계 그리고 영유권 근거 사료의 객관성·타당성 한계 등을 언급하면서 앞으로 한·일 영토 분쟁에 대한 다각적 점검에 이번 토론회의 의미를 부여했다. 이규철 교수는 조선시대 및 근대 이후 사료에 대해 발제의 내용과는 다른 해석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발제의 내용과 상반되는 사료가 다수 존재함을 들어 사료의 객관성과 신빙성에 대한 고민과 보다 많은 조사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종운 의장은 "현재 일본이 대마도를 실효 지배하고 있지만, 보다 항구적이고 장구한 차원에서 미래를 생각할 때 이번 토론회가 장차 우리나라가 남북통일을 이루고 나아가 만주와 대마도 등 고토 회복의 원대한 꿈을 이루는 단초가 되기를 바란다"며 토론회를 마무리 했다.

의정토론회



공주시의회 의정 활동 소식

조례안 및 제4회 추경예산안,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 처리

제230회 제2차 정례회 22일간 개최

공주시의회(의장 이종운)는 11월 22일 제230회 정례회를 개최하고 12월 13일까지 22일간 진행했다.

이번 정례회는 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각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해 ‘공주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2021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등 30건을 처리했다.

그리고 제2차 본회의에서는 ‘공주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21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9건의 안건을 처리했고, 제3차 본회의에서는 시정연설과 2022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들었다. 11월 30일부터 12월 10일까지 예결특위를 열어 ‘2022년 예산안’을 심사한 후 12월 13일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한편 제1차 본회의에서는 박기영 부의장의 ‘공주북중학교 등

하고 시 안전대책 요구’, 서승열 의원의 ‘공주시 로컬푸드(공주푸드플랜) 안착 촉구’ 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이종운 의장은 개회사에서 “비회기 중에도 민생 현장을 두루 살피면서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한 뒤 “코로나19 등으로 힘들었던 한 해였지만 우리 모두 공주시의 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한 결과 송선·동헌 신도시 개발 사업 협약 체결, 남공주산업단지 우량기업 유치, WHO 고령친화도시 인증 등 많은 결실을 이뤄낸 보람된 한 해였다”고 덧붙였다.

또한 집행부 공무원들에게는 동절기 종합안전대책을 철저히 수립해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면서, 폭설에 대비한 도로교통관리와 농작물 사후관리 및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해 줄 것과 취약계층에 대한 세심한 관심을 요청했다.

제230회 정례회



공주시의회 의정 활동 소식

공주시의회 ‘도시재생 정책연구 모임’ 최종보고회 개최

연구 모임, 지속가능한 정책 발굴에 기여 평가

시의회 도시재생 정책연구 모임(대표: 박기영 의원, 이맹석·김경수·임달희·정종순 의원)이 1년간의 연구 활동을 마치고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

연구 모임은 11월 22일 시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참여 의원들과 전문위원 그리고 권오상 주식회사 퍼즐랩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지난 1년간의 연구 활동을 마무리했다.

결과 보고에 따르면 공주시 원도심 도시재생을 위한 의제 발굴, 온라인 설문조사 및 응답자 심층 인터뷰를 실시했으며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방향성 설정 및 전략사업 발굴을 위해 학계 전문가 초빙 강연이 있었다.

또한, 시민 대상 도시 관련 정책 인식조사 결과 및 전문가 초빙 스터디 모임 결과를 공유했으며, 원도

심 도시재생 거점 공간 활용에 관한 패넬토론회를 열었고 시민, 도시계획박사, 공간 브랜딩 크리에이터 디렉터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논의를 가졌다.

한편, 이번 공주시의회의 도시재생 관련 연구 모임 활동은 코로나19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효율적이고 짜임새 있게 운영되었다는 호평을 받고 있다.

도시재생 정책연구 모임



시민예술공간, 우리 모두의 진정한 휴식을 위한 전시회 열려

바탕W의 ‘휴~휴 전’ 주제로 한국화, 서양화 등 전시

지난해 11월 15일부터 12월 12일까지 시의회 시민예술공간서 ‘바탕W’의 ‘휴~휴(休) 전’이라는 제목으로 ‘한국화, 서양화 등 20점’을 전시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공주에서만 볼 수 있는 건물이나 풍경을 한국화, 서양화, 섬유 등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한 작품을 만날 수 있었다.

시민예술공간



5분 발언

“공주북중학교 등하교 시 교통 관련 안전대책 요구”



박기영
공주시의회 부의장

공주시의회 박기영 부의장(국민의힘) ‘공주북중학교 등하교시 안전대책 요구’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공주시는 2020년 2월 5일 문예회관에서 국제안전도시 회원도시로서의 자격을 부여받고 공인협정서에 서명한 뒤 요코 시라이시 국제안전도시 실사단장으로부터 공인패와 휘장을 전달받고 유관기관 및 시민들과 함께 공인을 대외에 공식 선포한 바 있다고 말했다.

또한 시는 지난 2016년 안전도시 육성 조례 제정을 비롯해 안전도시 위원회와 산하 5개 분과를 구성해 재난안전과 교통안전, 자살예방 등 6개 분야 265개 사업을 발굴 및 추진해 왔고 공주경찰서와 공주소방서, 공주교육지원청 등 10개 유관기관 및 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공주시 국제안전도시 공인 선포는 국내 20번째로, 인증 기간은 5년으로 안전 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생명보호를 위한 시의 열정적인 노력 이면에 어린 학생들이 교통사고 등의 위험으로부터 노출돼 있어 신속한 대책이 요구된다면서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공주시 반죽동 제민천 1길에 소재한 공주북중학교의 등하교 시간에 버스정류장부터 학교까지의 주 출입로에 인도가 없어 학생들과 차량이 함께 통행해 교통사고 위험이 매우 많아 학생들을 지도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학생 234명과 교직원 30명 등 총 270여 명이 아침저녁으로 위험한 등교를 거듭하고 있어, 등하교 시간을 지켜본 결과 몇 번의 아슬아슬한 장면을 목격했고, 원도심의 한복판에 안전으로부터 무방비 상태에 있다 전하면서 공주시와 공주교육지원청 그리고 학교 재단 측에서 적극 나서서 학생들이 안전하게 등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요구했다.

“공주시 로컬푸드(공주푸드플랜) 안착 촉구”



서승열
공주시의회 의원

서승열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공주시 로컬푸드(공주푸드플랜)안착 촉구’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공주시가 민선 7기 시정의 역점 사업으로 추진 중인 공주푸드플랜은 먹거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진화 발전함에 따라 만들어진 우리지역 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시 지역 식량 계획이라고 할 수 있으며 생산·소비·복지·환경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먹거리와 연계해 통합 관리함으로써 지역 내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지역발전 종합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공주시민이면 누구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먹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과 공주시 농민의 소득 향상, 우리지역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대규모 단작화와 기계화에 의한 대량생산 중심의 관행 농업에 밀려, 아직 농업 생산 능력이 있음에도 고령화 영세화됐다는 이유로 지원 혜택이 없는 0.5ha 미만의 면적을 경작하는 65세 이상의 소규모 생산농민과 단독 여성농업인들을 대상으로 농기계 경운 작업과 간식비를 지원하는 ‘농작업지원단 운영지원사업’을 발의해 사업화하고 현재 추진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 사업은 농기계 작업조건 불리 소규모 생산 농업인의 적기 생산을 지원함으로써 로컬푸드 생산을 제고하는 등 지역농업 발전의 한 방안이 될 수 있으므로 지역농업 발전을 위해서는 보다 많은 지원과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2가지 실행을 제시했다.

첫째, 푸드플랜 안착을 위해서 앞으로 추가적인 조례 제정이 필요하고 둘째, 현재 로컬푸드와 공주형 푸드플랜의 생산 체계 구축 지원이 미흡하므로, 고령화와 영세화로 어려워만 가는 시의 지역농과 농촌 그리고 농민들에게 ‘로컬푸드’와 ‘공주푸드플랜’이 보다 활성화되고, 시민 행복의 밑거름이 될 수 있는 시정 추진을 촉구했다.